



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이탈리아 I

총 출품 와인 수 911종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낸 코리아와인챌린지 2022. 그중 이탈리아는 전체 메달 획득 수 3위, GOLD 메달 획득 수 2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다시 한번 뽐냈다. 토스카나와 피에몬테뿐만 아니라 볼리아, 아부르쑈, 사르데냐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며 국내외 사랑을 돈독히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주요 지역과 수상 와인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글 임효진 사진 및 자료 제공 <Wine Review 편집팀>, 각 수입사, 장영수

주요 와인 산지

아브루쑈

이탈리아반도의 중부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의 아드리아 해와 맞닿아 있다. 아펜니노산맥이 남으로 내려가는 한 가운데가 아브루쑈 지방이다. 북으로는 마르께, 서남쪽으로 라찌오, 동남간에 몰리제 지방과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아펜니노 산맥에서 가장 높은 그란 사쑈(Gran sasso)가 이곳을 감싸고 있어 포도재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토착품종인 몬테폴치아노로 양조한 와인, 몬테폴치아노 다부르쑈로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으며 트레비아노 다부르쑈 역시 이름 나 있다. 아브루쑈의 지형은 크게 산악지대와 해안의 평야지대로 나뉘는데, 이 지방의 와인은 주로 바닷가 인근의 평원에서 난다. 테라모, 페스카라, 끼에티 이 3개의 지역이 아브루쑈의 대표적 와인 산지다.



아브루쑈 산그로 언덕

북쪽의 테라모 지역에는 콜리네 테라마네(Colline Teramane) DOCG가 있어 최상급 와인을 내는데, 몬테폴치아노를 최소 90% 사용해야 하며 산지오베제를 10%까지 블렌딩할 수 있다. 페스카라 지역은 테라모와 남쪽의 끼에티 중간에 자리한 곳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 모두 생산한다. 끼에티는 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내는 곳이다.

아브루쑈 테라마나 해변



캄파니아

시칠리아와 함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캄파니아는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알리아니꼬, 팔랑기나, 그레꼬 등의 포도종을 이 지방에 전파했고 달리 로마인들은 팔레르뇨, 캄피, 플레그레이, 베수비우스 그리고 아벨리노 등지에서 나는 와인들을 즐겨 마신 것으로 되었다. 캄파니아는 이탈리아 최상급의 와인인 DOCG의 와인을 4곳에서 내고 있다. 타부르노의 알리아니꼬, 아벨리노의 피아노, 투포의 그레꼬, 그리고 따우라지가 속한다. 이 지역들의 토양은 화산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우라지 주변의 화산인 캄피 플레그레이, 베수비오, 볼투레(바실리카타의 경계) 등의 3곳이 있어 이들이 뽑어낸 갯터미가 오늘날 포도밭의 훌륭한 토양이 된 것이다.



페우디 따우라시의 캄파니아 포도밭



마르께의 파노라마 전경

마르께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서로는 움브리아, 남으로는 아브루쑈 지역과 접하고 있다. 동쪽에는 아드리아 해가 펼쳐지고 내륙 쪽은 아펜니노 산맥이 자리하고 있어 균형을 이룬다. 마르께 지방은 바다에서 오는 미풍과 내륙의 산맥들로 인해 포도가 자라는 데 이상적인 환경이다.

마르께 지역에서 나는 와인은 화이트가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이름난 화이트 와인에는 마르께의 주도 앙코나(Ancona) 지역의 예시 마을에서 생산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있다. 베르데기오로 빛는다. 레드 와인 산지로는 코네로(Conero)와 피체노(Piceno)가 있다. 코네로는 코네로 산 발치에 발달한 아주 자그마한 산지인데, 이곳에서 몬테폴치아노와 산지오베제로 빛은 DOCG 레드 와인이 난다.

피에몬테

이탈리아반도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산지다. 북으로는 알프스 산이 서남쪽에는 아펜니노산맥이 발달해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구릉과 언덕으로 덮여 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와인들이 나는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 와인의 최상급 품계인 DOCG와 그 아래 품계인 DOC도 여느 지방보다 많다. 질 좋은 와인이 나는 두 곳의 언덕이 유명한데 바로 랑게(Langhe)와 몽페라토(Monferrato)이다. 이 지역에는 포 강이 관류하고 있고 타나로 강이 있어 최상의 포도가 자라는

피에몬테 아귀 지역의 포도밭



환경을 만들어준다. 바로 이 강이 지나는 유역에 익히 알려진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아스티 등이 있다. 빼에몬테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토양은 주로 석회석, 진흙, 그리고 층적으로 구성된다. 햇살이 잘 쬐이는 언덕과 완만한 구릉이 곳곳에 발달해 포도의 재배, 와인의 양조가 훌륭하다. 재배되는 레드 품종에는 네비올로, 바르베라, 보나르다, 브라게토, 돌체토, 프레이사, 그리놀리노 등이 있으며 화이트 종에는 아르네이스, 꼬르테제, 아르베루체, 모스카토, 나체마, 로세제 등이 있다.

쁠리아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끝, 구두 굽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도는 바리(Bari).쁠리아는 아펜니노 산맥이 이 지역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가 거의 없고 광활한 평원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평원에서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동안 이 넓고 넓은 평원지대에서 단위량 생산량은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품질의 수준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리미티보라는 품종의 재발견, 그리고 와인 생산에 대한 외부의 투자로 인해 와인 산업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쁠리아의 풀리나노 아 마레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프리미티보 이외에도 네그로아마로, 우바 디 트로이아의 토착품종과 산지오베제, 바르베라, 알리아니꼬, 몬테폴치아노 등으로 레드 와인을 양조하고 있으며 화이트에는 봄비노 비앙코, 베드데카라는 토착 품종이 재배된다.

수상 와인너리

Cascina Chicco

카시나 치쿠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와인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로에로와 랑게 지역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각각의 때루아를 잘 살려 특징이 두드러지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50ha 이상을 경작하고 있다. '치쿠(Chicu)'는 와인너리 양조장의 창시자인 할아버지 Ernesto의 별명이다. 1950년대에 정육점에서 근무했던 Ernesto Faccenda가 로에로 중심부의 Canale 포도밭을 구입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포도밭을 확장하고 와인 보관창고 또한 재설비하며 세계시장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BEST ITALY Cascina chicco rocche di castelletto Barolo



카시나 치쿠의 네비올로 포도밭

Ruffino

이탈리아 와인 명가 루피노는 1877년 사촌 관계이던 일라리오 루피노(Ilario Ruffino)와 레오폴드 루피노(Leopoldo Ruffino)가 플로렌스 근처에 위치한 폰타씨에베(Pontassieve)에 와인너리를 설립하며 시작되었다. 이들은 토스카나를 대표할 와인을 만들기 위해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와인을 만든다 (Here We make ideal Wine)"라는 신조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루피노 끼안티는 1881년 밀란 와인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884년 니스 와인 전시회와 1885년 앤트워프 와인 전시회에서 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끼안티를 대표하는 와인너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수입사 나라셀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uffino Riserva Ducale Oro Gran Selezione Chianti Classico DOCG
BRONZE Ruffino Riserva Ducale Chianti Classico DOCG
BRONZE Ruffino Modus Igt



루피노의 포도밭

Notte Rossa

이탈리아어로 '붉은 밤'을 뜻하는 노페 로사는 뽀리아 살렌토에 위치하여 양질의 프리미티보 와인을 양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NOTTE ROSSA의 청포도는 살렌토 지역 타란토 북부 지방의 언덕과 해발 150m 점토질 토양에서 재배되어 훌륭한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것으로 만든 와인은 향, 세련미, 균형 모든 면에서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로 대표되는 레드 와인은 남쪽 땅에 위치하여 붉은 토양, 석회암 및 모래 지역, 오래된 부시 덩굴, 이오니아 해에서 부는 미푸오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와인은 구조감이 탄탄하며 섬세하고 신선한 미네랄리티를 느낄 수 있다. 수입사 젠니훈주류

수상 와인리스트

GOLD Negro Amaro
SILVER Primitivo Di Manduria
SILVER Bascia



노페 로사가 수확한 포도

Ferro 13

페로13은 2015년도에 와인메이커, 와인마케터, 디렉터 등 5명의 와인 전문가가 베로나에 위치한 페로 13거리에서 저녁을 먹으며 와인너리 설립을 결정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페로13은 일명 비정형 와인너리이다. 북부 이탈리아부터 남부까지 이태리 전역을 아울러 와인을 생산한다. 시장이 요구하는 와인을 생산하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열정과 개성을 충분히 녹여낸 와인을 만든다. 모든 와인은 독립적으로 계약된 포도밭에서 일정한 품질기준을 통과한 포도로 생산된다. 모던한 라벨을 가진 와인은 품질이 낫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준 이태리의 젊은 와인너리이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수상 와인리스트

GOLD Hacker Sangiovese
BRONZE Hashtag Sauvignon Blanc



페로 13 힙스터

Batasiolo

바타시올로는 랑게(Langhe) 지역에서 가장 큰 와인 생산자 중 하나로 돌리아니(Dogliani) 가족소유의 포도원이다. 1978년 돌리아니 형제가 라 모라(La Morra)에 있는 역사 깊은 와인너리인 카이올라(Kiola)를 인수 후 베니 디 바타시올로(BENI DI BATASIOLO)를 설립하여 가족 경영으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랑게(Langhe)의 중심부는 물론, 이 지역의 훌륭하다고 알려진 다양한 생산지에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타시올로는 바롤로를 비롯하여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티, 돌체토 달바, 모스카토 다스티, 랑게 샤르도네, 가비 디 가비 등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GOLD Batasiolo Barolo Cerequio
GOLD Batasiolo Roero Arneis
SILVER Batasiolo Barolo Riserva
SILVER Batasiolo Moscato d'Asti Bosc d'la Rei
BRONZE Batasiolo Langhe Nebbiolo



바타시올로의 오크배럴

Masi

마시 와인너리는 이탈리아 베네토(Veneto)를 대표하며 특히 바롤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와 함께 이탈리아 3대 명주 중 하나로 꼽히는 아마로네로 유명하다. 1772년 보스카니(Boscaini) 가문에 의해 발폴리첼라 지역 마시 계곡(Vajo de Masi)에 설립되었으며, 2세기에 걸친 재배 및 양조기술을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하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탈리아 와인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와인너리이며, 실제로 Masi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19개 이탈리아 최고 와인 명가들의 집합인 '그란디 마르키(Grandi Marchi)'에 속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아마로네 명가로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레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Riserva Costasera Amarone
SILVER Costasera Amarone



포도를 건조 중인 마시 와인너리

La Poderina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3대 와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생산하는 소규모 부띠끄 와인너리이다. 몬탈치노에서 가장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아하고 균형감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까스텔 누오보 델라바떼'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을 유지하며 모던한 기술력의 조화를 이루는 양조 능력이 뛰어난 와인너리이며 이태리 유명 양조가 및 컨설턴트인 Riccardo Cotarella가 와인 메이킹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으로 판매될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수입사 레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a Poderina, Brunello Di Montalcino
SILVER La Poderina, Rosso Di Montalcino



라 포데리나 와인너리

Braida

1961년 설립된 브라이다는 피에몬테의 작은 마을 로체타 타나로(Rocchetta Tanaro)에 위치해 있다. 설립자 쥬세페 볼로냐(Giuseppe Bologna)의 아들 자코모(Giacomo)는 바르베라 와인의 혁명을 이끈 인물로, 바르베라가 지닌 잠재력을 세상에 알렸다. 바르베라에 가장 좋은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에서 포도를 재배했고, 프랑스 오크통 숙성을 도입했다. 현재 자코모의 딸과 아들인 라파엘라(Raffaella)와 베페(Beppe)가 3대째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다. 수입사 무학주류상사

수상 와인리스트

GOLD Braida, Brunello Di Montalcino



볼로냐 가족들

Vesevo

베세보는 아브루초의 유명 생산자 판티니와 캄파니아 지역에서 최고의 와인 생산지역의 포도밭을 제공하는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으로 세워진 와이너리로, 캄파니아 지역에서 최고의 생산지역에 위치해 있다. 타우라시(Taurasi)는 벤티카노(Venticano)라 불리는 마을의 포도밭에서 생산되었으며 오직 20년 이상된 수령의 알리아니고 포도나무만으로 만들어진다. 알리아니고 품종은 2000년 이상 된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품종이다. 1997년 첫번째 타우라시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와인메이커는 젊고 재능 있는 마르코 팔코(Marco Falco)와 양조전문가인 마리오 에르콜리노(Mario Ercolino)이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esevo Taurasi Ensis



베세보 포도밭 전경

Fantini Group Vini

판티니 그룹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와인 평론지 루카 마로니(Luca Maroni)로부터 여러 차례 베스트 이탈리아인 와인 프로듀서로 선정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남부 이탈리아 와인의 선두주자이자, 중부에서 남부까지 보석 같은 와이너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심, 개별 제품에 대한 세부 타겟 마케팅 전략 및 높은 평가되는 양조 방식을 통해 판티니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티크 와이너리)로 인정받았고, 이탈리아 남부 와인 르네상스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자리 매김했다. 세련된 스타일의 비니 판티니(Vini Fantini) 와인은 파르네토 벨리 및 아브루초의 주요 와인 생산지에서 엄선된 포도로 만들어졌으며, 역사적 건물인 칼도라 성(Caldora Castle)의 아름다운 지하실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Fantini Casale Vecchio Montepulciano d'Abruzzo

SILVER Fantini Gran Cuvée Bianco Swarovski

SILVER Fantini Edizione Collection No.20

BRONZE Fantini Three Dreamers

BRONZE Fantini Edizione Bianco

BRONZE Fantini Collection Bianco

BRONZE Fantini Calalenta Pecorino



판티니 팀

Vallepicciola

발레피치올라 와이너리는 이태리 토스카나의 끼안띠 클라시코의 심장부인 발레피치올라에 위치 하고 있다. 이 곳은 근처 시에나의 카스텔 누오보 베라 덴가의 동쪽 언덕을 따라 뻗어 있으며 온화한 미시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축복 받은 땅이라 불리며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곳이다. 아르비아 강 왼쪽의 구릉 지역에 분포하는 포도원은 석회질 토양과 점토, 모래 등의 다양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토양의 구성은 발레피치올라 와이너리의 가장 큰 특징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향, 강한 개성 그리고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와인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꼼꼼한 포도밭 관리와 수확량 조절로 농축된 포도만을 선별하여 만든 끼안띠 클라시코 와인은 풍부한 아로마의 최고 품질의 와인으로 탄생된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hianti Classico DOCG

SILVER Pievasciata Igt Rosso Toscana



발레피치올라 와이너리 로고

Vite Colte

비떼 꼴페는 와인 생산자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비떼 꼴페는 180명의 와인 전문 포도 재배자로 구성된 그룹이며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 300ha의 포도밭에서 연간 1,000,000병의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소중함 파트너인 포도나무 재배자들은 비떼 꼴페 프로젝트에 각 개인 토지 중 일부를 할애하여 기술 농학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한 포도 재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광대한 유산과도 같은 비떼 꼴페 포도원은 지역 최고의 와인 생산자를 선별하여 구성되었으며 최첨단 양조 시설을 바탕으로 포도의 품질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갖춰진 진정한 일류 클래스 기술을 자랑하는 최고의 와인 그룹이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passo Piemonte Rosso Passito

SILVER La Luna e I Falo Barbera d'Asti Superiore

BRONZE Tra Donne Sole



비떼 꼴페 와이너리 전경

Avignonesi

아비노네지는 토스카나 지방의 대표 와이너리 중 한 곳인 동시에 오랜 가문의 역사를 자랑하는 와이너리다. 이들은 와인을 통해 떼루아를 온전하게 표현하고자 토양의 상태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한다. 화학적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섬세한 수확 방식으로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유기농법과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지향하며 와인 양조를 하고 있다. 수입사 레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Avignonesi, Vino Nobile De Montepulciano



아비노네지 와이너리와 포도밭 전경

Fosso Corno Società Agricola Semplice

포쏘 꼬르노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의 페라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3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아드리아 해와 그란 사소의 산을 등지고 있어 포도가 자라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포쏘 꼬르노는 2001년 여행으로 이곳을 들렀던 현재 오너의 아버지인 아우구스토 비스카르도(Augusto Biscardo)가 아브루초의 풍광에 빠져 이곳에 포도밭을 사들이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2003년 9ha로 포도밭의 관리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포쏘 꼬르노만의 몬테폴치아노 다브루초의 클론을 개발하여 성장하기 시작했다. 매년 포도밭을 확장하며 이들만의 개성을 살린 몬테폴치아노 다브루초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Orsus Colline Teramane Montepulciano d'Abruzzo DOCG Riserva



포쏘 꼬르노 와이너리 로고